전북금연지원센터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금 연 성 공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신용동 344-2) 원광대학교병원 외래1관 1층
TEL : 063) 859-2400 ~ 2410 FAX : 063) 859-2414

전주매일

2016년 3월 18일 금요일 (음 2월 10일) 제1521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곽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4.13 총선 D-26

도내 현역의원 물갈이 5명… 표심 '주목'

'묵묵부답'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의 '일방 공천'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17일 최고위를 거부했지만, 친박계 최고위원들의 공세가 계속되자 18일 임시 최고위를 소집키로 결정했다. 이날 김 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집무실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강동원·최규성 등 공천 배제 이상직·박민수 경선에서 탈락

"부담"·"적절" 의견차 '팽팽'

더민주 '집안싸움' 번져나가 새누리·국민의당 '호재' 작용

전북 정치권의 현역 의원 물갈이가 현실화되는 등 민심이 요동치고 있다.

전북지역 현역인 전정희, 강동원, 최규성 의원이 공천 탈락된 데 이어 전주을 이상직 의원과 완주진무장 박민수 의원까지 경선에서 탈락해 당내 파장이 커지고 있다.

또 이들의 빈자리 표심이 향후 어디로 쏠릴지도 관심이 집중된다.

뿐만 아니라 단수추천으로 이름을 올렸던 후보들까지도 물갈이가 현실화되는 거 아닌지 일부 후보측근들은 전전긍긍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경선을 놓고 현역 의원의 탈락을 아쉬워하는 목소리와 물갈이가 적절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먼저 아쉬워하는 입장은 잦은 물갈이로 인한 중진 부재로 전북 정치권 존재감을 손꼽았다.

실제로 전주지역 선거구의 경우 지난 17~19대까지 9명의 의원 중 재선이 한명도 없는 것으로 집계될 정도로 현역 탈락이 많았다.

전주시 송천동에 거주하는 최은선(40)씨는 "현역 물갈이가 높다는 점은 상당히 부담스러운 대목이다. 국회에 어느 정도 적응을 했을텐데 후보에게 하자가 없는 한 아무래도 한번쯤은 더 기회를 줘야 하지 않나 싶다"고 했다.

김상재(52. 전주시 평화동)씨 역시 "현 의원이 바뀌면 지금 하던 일을 멈춰야 하는 것 아니냐. 무엇보다도 19대 전북정치는 당내 지도부와 한발 물러서 있었다"면서 "대폭적인 현역 탈락으로 전북 정치 구심점이 아예 사라질까봐 걱정이다"고 했다.

반면에 적절한 물갈이라는 의견도 있다.

김경선(44. 전주시 진북동)씨는 "탈락된 정치인들은 좀 섭섭하지만 바뀔만하니 이러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싶다. 신뢰와 추진력과 열정이 있는 후보가 있으면 그런 후보들에게 자리를 양보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임금주(58. 전주시 동서학동)씨는 "20대 총선은 양당 구조가 아니다. 전북 정치도 바뀔 필요가 있다. 국민의당으로 간 후보들중 재선이나 초선 의원들이 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새누리당이나 국민의당 측은 현역 탈락을 내심 반기는 눈치다.

더불어민주당 경선과정에서 나온 혼란과 분열을 은근히 기대하는 눈치다.

'집안 싸움'이 지지세력 이탈로 번져 총선 대결구도의 '호재'로 작용할 것이란 분위기도 엿보인다.

정가 한 관계자는 "19대 총선은 전북 11명의 의원 중 7명이 초선들로 채워지면서 세대교체라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여전히 정치권을 바라보는 도민들이 시선은 마찬가지였다. 이번 경선을 보면 유권자들의 민심이 어디로 흐르는지 미뤄볼수 있는 대목이다. 이번 20대도 19대 못지 않는 현역 교체 바람이 일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신광영 기자

김한길, 총선 불출마 선언

"야권연대 불발에 책임감" 안철수와 결별은 안할 듯

국민의당 김한길 의원이 17일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탈당은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입장발표문을 내고 "(야권연대를) 성사시키지 못한 것에 스스로 책임을 물어 20대 총선에 출마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작금의 정치상황에서 집권세력의 압승이 불러올 끔찍한 상황을 막아내고 당이 수도권 의석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당 차원의 야권연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야권연대를 주장하며 지난 11일 당 상임공동선대위원장직을 내려놨다.

당내에서 함께 야권연대를 주장해온 천정배 대표가 당 차원의 수도권 연대가 여의치 않다며 '당무복귀'를 선언한 지난 15일에는 "눈먼 자들의 도시에서는 눈뜬 사람 하나가 모든 진실을 말해준다는 말이 있다"며 답답함을 토로하기도 했었다.

김 의원은 국민의당을 탈당하는 방안 등은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안 대표와의 '결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관측된다.

김 의원은 당적을 유지한 채 향후 총선과 대선국면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고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민의당은 서울 광진 갑에 김 의원을 단수 공천해둔 상태다. /박용주 기자

"바로선 정치가 희망"

조응천 전 비서관, 남양주갑 출마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한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17일 경기 남양주갑 출마를 선언했다. 조 전 비서관은 앞서 남양주갑에 전략공천됐다.

조 전 비서관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바로선 정치가 우리의 희망"이라며 출마를 선언했다.

조 전 비서관은 "'이 놈 저 놈 똑같다'는 정치불신을 먹이로 수구보수세력은 커가고 있다"며 "정치를 포기하는 것은 미래를 포기하는 것이고 저들을 웃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절망의 늪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 있는 것도 정치일 수 밖에 없다"며 "그것이 바로 제가 정치를 하겠다고 결심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그는 "저는 공직에서 법조계에서 전문적 경험과 식견을 쌓았고, 그리 길진 않지만 자영업자로서 애환을 온 몸으로 겪었다"며 "이런 제 삶을 바탕으로 더민주에서 당원과 함께 국민만 바라보고 새로운 정치를 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더민주가 저를 남양주갑 전략공천 후보로 결정한 것은 '반드시 이겨라. 반드시 바로선 정치를 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대신 전달한 것에 다름 아니다"며 "정약용 선생이 나고, 묻힌 남양주에서 이제 목민심서와 경세유표를 같이 새기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승리, 더민주의 승리, 정권교체를 위해 무한 헌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성주 기자

신기남 의원, 원외 민주당 입당

무소속 신기남 의원이 김민석 전 의원이 이끄는 원외 '민주당'에 입당한다.

신 의원의 입당으로 원외 민주당은 의석 1석을 확보, 원내로 진입하게 됐다.

신 의원은 18일 오전 10시20분 국회 정론관에서 입당 회견을 갖고 원외 민주당 입당 동기 등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그는 민주당 당적으로 자신의 지역구인 서울 강서갑에 출마한다는 방침이다.

원외 민주당은 "신 의원의 민주당 입당은 정체성을 상실한 야권을 바로세우기 위한 용기 있는 결단"이라고 환영 의사를 밝혔다.

민주당은 이어 "4선 경륜의 신기남 의원 입당으로 원내 정당이 된 민주당은 야당의 정체성회복과 야권통합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며 "현역 의원을 포함한 각계 인사 영입을 계속하는 등 선거준비를 차근차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녀 로스쿨 졸업시험 구제' 의혹을 받아온 신기남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공천권 박탈 중징계 방침에 반발, 지난 14일 더민주를 전격 탈당했다. /이성주 기자

**토·일요일 신문 쉽니다.

▶ 매일 INDEX

4면 주민 주도 동네복지, 전주형 복지모델로 정착
6면 도내 글로벌 투자기업 공장 준공 잇따라